

광주시, 김장대전 흥행...매출 20.8억 역대 최대

프로그램 연중 운영, 1만8000명 292톤·판매액 17.3% 증가...택배 급증 전국 확대

광주시가 시민들이 손쉽게 김장을 준비하고, 기업·단체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빛고를 김장대전’이 매출 20억 8000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 참여형 김치 나눔·판매 행사인 ‘2025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기관·단체·시민 등 1만 8000여 명이 참여해 총 292.6t, 20억 8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에는 3400여 명이 참여해 24t, 2억 290만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

또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한 ‘김치대전 본행사’에는 1만 4000여 명이 참여해 총 268t, 18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첫 개최 이래 최고 실적이며, 지난해 판매액 17억 7000만 원(275t)보다 17.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과는 참여 인원과 매출액이 모두 늘어 김장대전의 성장세를 입증한 것으로, 광주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택배 주문 금액이 전년 대비 47.1% 늘어 광주김치에 대한 전국 수요

확대와 함께 김치 소비문화 변화를 확인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등 53개 기관·단체가 김치 30.9t을 취약계층에 기부해 단순히 김치 판매만이 아닌 나눔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장대전에 사용된 배추·소금·고춧가루·멸치액젓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구매해 활용했다. 시는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과 본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운영 전략이 광주김치 충성 고객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손권일 기자

장수 2025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당부

연말까지 일반건강검진·국가암검진 가능, 신분증 지참

장수군은 2025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올해가 가기 전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더라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말 이전 수검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B형간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검사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대사질환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이상이나 빈혈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위암과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로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 별관 2층 건강검진실을 방문하면 된다.

농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건강검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받을수

록 의미가 크다”며 “연말이 되면 검진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미수검자에게서는 서둘러 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건강검진 문이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국가암검진 문이는 공단 고객센터·보이는 ARS로 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2026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15억 원이 투입되며 총 20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준고령자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친환경 참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 사업 등이다.

김서주 기자

보성군·여수공항, 지역과 공항이 함께 도약한다

보성군은 보성군과 여수공항 간 지역관광 활성화 및 공항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하정인 여수공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해안 관광권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의지를 공유했다.

협약은 보성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여수공항의 항공 교통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수요 확대와 공항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여수공항-보성관광자원 연계 홍보 및 공동 마케팅, ▲

공항 이용객 대상 보성 관광 콘텐츠·특산물 홍보, ▲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 및 패키지 상품 발굴, ▲ 지역 축제·행사과 공항 홍보 기반 연계 활용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공항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경로를 다각화하고, 남해안 관광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수공항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통해 이용객 증가와 공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보성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여수공항의 교통 인프라가 결합해 관광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

기”라며, “앞으로도 여수공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성이 남해안 대표 관광지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울포술밭해수욕장, 보성차밭, 별고갯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관광 거점 지역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광역 교통망 연계를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전라남도의 재정 조정으로 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도비가 50% 감액된 상황에서도 군비를 추가 투입해 오는 22일부터 농가에 차질 없는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덕현 기자

노후 전주산단, 경쟁력 갖춘 미래산단으로!



노후화된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젊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단으로 점차 탈바꿈되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산업 생태계의 중심인 노후 산업단지를 다시 뉘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산단 재생·고도화 정책이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로 이어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과 산단환경조성사업 등 주요 공모사업이 잇따라 채택되면서 전주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산업단지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높여 노후산단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비 공모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재도약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지구와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

은 해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디지털·친환경 전환 기반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국비 지원과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구축 △무탄소 친환경의 깨끗한 산단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신나는 산단 3대 중점과제 및 23개의 핵심 세부 사업을 통해 산단 대개조를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에 따른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전주지역 산단에서는 △통합관리센터 구축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4억 원이 지원되는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기반 다져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정착·고용·사회통합 정책 성과, 외국인 주민 1만4천 명 돌파



군산시는 2024년 1월 인구대응담당관 외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이 2025년 들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역대 최고치인 1만 4,257명으로, 전체 인구(26만 5,473명)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3.0%에서 9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의 '유입·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체계를 구축해 왔다.

분야별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육·교육, 고용지원, 정주지원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 협의 TF를 통해 14개 부서가 연계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또 올해 2월 군산 산단 복합문화센

터에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 한국어 교육, 생활 상담, 노무·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11월 말 기준 총 534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기초 한국어 반과 TOPIK 대비반에는 44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K-소통 한마당'과 바리스타 교육 과정도 운영해 직업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했으며, 바리스타 교육 과정에서는 외국인 주민 6명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울러 군산시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3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97명이 참여해 체류자격 취득과 가족 초청 준비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자에게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비

자 설명회 등을 운영한 결과 숙련기능 인력은 2023년 말 100명에서 2025년 9월 239명으로 증가했으며, 가족 동반 정착 사례도 늘어 동반가족(F-3-74)은 0명에서 91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군산시는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국국적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 정착 서비스와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 협력해 외국인과의 시너지 효과는 문화·체육·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착한가격업소' 7개소(외식업 1, 이·미용업 6)를 신규 지정하고,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재심사도 진행하여 36개소를 재지정하였다.

이로써 총 20개 업소가 올해 신규 지정됐으며, 지난해 42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영임 기자

창업보육 상장 1호 박셀바이오 신사옥개소

화순생물의약1산단서 항암면역치료제 등 연구·개발

전라남도도는 지역 바이오 상장 1호 기업인 ㈜박셀바이오가 화순생물의약제1 산업단지에서 신사옥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전남바이옌진흥원 창업보육기업으로 출발한 박셀바이오는 NK세포 기반 항암면역치료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축적했다.

2020년 9월 전남지역 자생 바이오기업 가운데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전남도는 화순 백산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산과 면역치료 분야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했다. 박셀바이오 신사옥 개소는 도의 정책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된 상징적 사례로 의미가 크다.

개소식에는 심상완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과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임지락 전남도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사옥은 화순생물의약1산단 1만 3천352㎡ 부지에 첨단제조플랫폼(AMP)



시설과 사무공간, 회의실 등을 갖춘 연면적 2천132㎡,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연구개발과 경영 기능을 집적한 공간으로, 앞으로 항암면역치료제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 임상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NK세포 제조기술과 이를 활용한 치료방법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는 등 항암면역치료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우덕현 기자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도 편안하게

정읍시가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대거 교체하며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차량이 만료된 경유 버스 7대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해, 총 10대의 친환경 버스가 시내를 누비게 됐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는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기한이 도래하면 신차로 대체차(차량) 교체해야 한다. 정읍시는 이 시기에 맞춰 노후된 경유 버스를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고자 했

다.

특히 이번에도 도입된 전기저상버스는 출입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전기저상버스 1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2대를 추가해 총 3대를 운행해 왔다. 여기에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총 10대의 전기저상버스가 정읍 시내 곳곳을 운행하게 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노후 버스 교체 시기에 맞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태추단감'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센터는 제2청사에서 재배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태추단감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서재만 단감 현장교수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태추단감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전수했다.

이영임 기자